

하박국 맥잡기 미: 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나요? 대언자 하박국의 부르짖음

하박국 1장

구약 성경의 대언서 살펴볼 필요, 교회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심각한 죄, 심지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

유다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뒤 돌아옴, 지난 30시간,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맥잡기 지난 3주 미가서, 오늘부터 하박국 맥잡기를 한다. 앞으로 스바냐, 요나, 에스테르 등, 올해 안에 대언서들 끝내려고 함, 예레미야 맥잡기도 할 것이다.

하박국 개요

기록자: 하박국, 기록 시기: 주전 61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 이름: 하박국은 '껴안다'를 뜻한다. 대언자 하박국은 읍과 더불어 질문의 대언자로 불리는데 읍은 주로 자신의 문제로 주께 질문했지만 하박국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질문했다.

주제: 바빌론의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는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목적: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므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행하심을 보여 주는 것

내용: 하박국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포위하기 직전에 대언을 했다. 이 대언서의 구조와 신학적 내용은 매우 독특하다. 처음 두 장에는 주 하나님과 대언자 사이의 대화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언자는 몇몇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아울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악을 참으실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주께 요구한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며 여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목적을 성취하여 달라고 즉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해 달라고 주께 간구한다. 이 기도에 이어 그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시며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환상 계시를 받고 그 결과 경외와 확신에 싸이게 된다. 하박국은 3장, 56절, 1,475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하박국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

핵심 절: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2:4), 핵심 단어: 믿음

핵심 문구: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1:3), 하박국서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2:4; 갈2:16), 영적 교훈: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3:4).

하박국의 구성

1장: 대언자가 이해할 수 없어 의아해하고 걱정함: 왜 무관심하십니까? 나는 일하고 있다.

2장: 대언자가 깨어서 기다림, 하나님의 환상 계시, 하나님의 말씀 신뢰, 하나님의 심판 선포

3장: 대언자가 예배하고 증언함: 기도와 찬양

하박국 연구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 당시 왕 요시아, 여호야김 시대

아시리아는 가고 바빌론 등장, BC 605-6년경 느부갓네살 이집트 격파, 유다를 침공하려 함

그 뒤 느부갓네살 세 번 유다 공격, BC 606-586, 유다 멸망한

하박국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3장의 시로 보아 어찌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2:4), 신약 성경에 3번 언급됨(롬1:17; 갈3:11; 히10:38).

롬: 칭의, 갈: 성화, 히: 믿음 자체

하박국 1장: 국가와 세상 역사로 인해 근심하는 하박국 대언자

현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 변영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일이 다 잘될 것이다.

성경의 대답: 반드시 그렇지 않다.

믿고 구원받으면 기본적인 영적 문제 해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데 동시에 불신자로 지내던 때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닥친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악한 자들이 변영하는가?"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악한 일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내게 닥치는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실이 아니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적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욥기, 욥의 친구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악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네게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 너는 악인이다. 이것은 착각이다.

시22:1을 보라, 다윗과 예수님의 외침

하박국은 유다 땅의 사정과 국제 정세를 보면서 심각한 문제를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갔다.

1.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관심한가요?

하박국은 대언자로서 유다 왕국이 쇠퇴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목사의 책무 중 하나

선한 왕 요시아의 죽음(BC 610년경) 이후 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함

그의 종교적 개혁 대다수 백성이 잊어버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점점 저 멸망 쪽으로 나라를 이끌고
감

1. 대언자의 염려(2-3).

폭력, 불법, 노략, 불화, 다툼 등의 단어, 시대가 불안정하고 악함을 보여 준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못하신 듯 조용히 계신다.

2절의 부르짖음, 도움을 위한 것, 그러나 응답이 없다. 그 땅의 사악한 일에 대해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무관심에 점점 더 부담을 느낀다.

2. 근본 원인(4),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문제이다.

부자들, 강한 자들이 약자들 착취함, 뇌물을 써서 재판을 굽베 함

율법이 왜곡되는데도 나서는 자가 없다.

재판관들도 비뚤어졌다.

3. 주님의 조언(5-11)

주님은 대언자에게 응답하시며 자신이 민족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음을 알리신다. 물론 하박국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그에게 설명이 아니라 환상 계시를 주신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창1:1

다만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워서 대언자도 깜짝 놀란다(5).

하나님은 사악한 바빌론 사람들을 써서 유대인들을 멸하려 하신다(6).

그들의 특징(6-7)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주님은 자연계의 그림들을 사용해서 바빌론 사람들을 묘사하신다.

그들의 말은 표범처럼 빠르다. 이리처럼 사납다(8).

그들의 군대는 독수리처럼 희생물에 내려앉는다(8).

그리고 바람처럼 사막을 휩쓸고 간다(9).

과연 누가 이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계신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빌론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이나 권세를 존중하지 않는다(10).

그들의 풍습: 왕을 잡아서 새장 같은 데 가두고 조롱하며 데리고 간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순다.

그들은 힘을 주는 신을 신뢰하고 그 신에게 의존하다(11).

하박국의 깨달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들에 무관심하지 않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다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 심지어 악인들인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하려 하신다.

이것은 물론 하박국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부흥을 보내실 것을 기대하였다(3:2).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땅에 의를 확립할 것을 기대하였다. 물론 유다 백성이 형벌을 벗어나서 용서받기를 기대하였다.

사실 하나님은 몇 백 년 동안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경고하셨다(대하36:14-21).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음

기근, 재앙,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 등을 가져와도 마찬가지

오히려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에 다다름

2. 왜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나요?(12-17)

하박국이 보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답은 답이 아니었다. 더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일으켰다.

왜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까?

1. 하나님의 거룩하심(12-13)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런 문제들에 직면한다.

의심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박국처럼 의심하는 사람, 문제 제기, 주님과 토론,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불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불신은 의지의 문제, 의심은 상한 심령, 고통당하는 마음의 문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로 든다(12-13).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을 써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유다 사람들의 악행은 처벌 대상,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

다른 사람들 사용 OK,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은 No!

그러면 유다는 완전히 망하는가? 아니다. (12)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불법의 형벌을 당해야만 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1. 하나님은 전쟁, 기근, 대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는다.

2. 더 많은 빛을 받으면 책임도 그만큼 더 커진다.

바빌론 사람들, 악인들이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상 숭배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의 죄가 훨씬 더 중대하다

특히 그들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말한다(12). 모든 것을 아는 분

모든 권능이 있으신 분, 변하지 않는 분

그런데 국내 국외 정세를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현 시대 대한민국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 중부 주사파들이 나라 장악, 백성은 편안하게 생각 배은망덕한 일이다.

사실 이런 것들로 고민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화된다.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면 늘 미성숙한 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면에서 성장하게 된다(벧후3:18).

2. 백성의 미약함(14-15),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급하고 그 뒤에 백성의 무기력함을 언급함 유다는 바빌론의 공격으로 인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유다 백성은 그물에 걸린 고기들같이 될 것이다 (14).

어떻게 이런 연약한 백성을 그들의 공격의 희생물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의 신은 힘이 다(11). 그들은 그물을 무기로 삼는다(15-16).

폭력과 힘의 신들을 숭배한다.

그 결과 그들은 자만에 빠졌다(2:4)

어떻게 이런 자들이 유다를 이기게 할 수 있는가?

바빌론 사람들의 신들: 벨, 아누, 느보, 네갈

마술, 마법, 점술 성행, 율법은 이런 것들 금지

대언자의 항변 요약 1:17

3. 이 모든 것을 말한 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다린다(2:1).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이 2장에 있다.

하나님의 답을 듣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우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매우 많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기억하라.

롬11:33-36

하박국 맥잡기 2부: 하나님의 응답: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려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지난주 하박국 1장, 왜 종종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되는가?

어떻게 사악한 바빌론 사람들이 잘될 수 있는가?

이번 장 하나님의 응답, 시73편의 아삽도 비슷한 문제, 왜 악인들이 흥왕하는가?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므로 아삽은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추론함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주신 것과 비슷한 메시지를 그에게 줌

1장 이후 이제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을 보자(2:1). 하나님은 그에게 무어라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심

1.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기록하라(1-3).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파수꾼으로 예루살렘 성벽에 서 있다.

고대에 파수꾼은 파수대에 서서 위험이 닥치는 것을 경고하였다.

파수꾼이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겔3:17-21; 33:1-3).

파수꾼의 상징은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준다.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보고 알려야 한다(마3:7). 즉 복음 선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장로들(행20:26)

1장에서 하박국은 어느 면에서 불평불만 토로, 두려움 속에 있다.

그러나 2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롭게 대하시고 환상 계시를 주신다. 그 결과 그는 주님 찬양이 환상 계시는 2장 전체와 3:3-15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우리가 지금 2장, 3장을 보는 이유: 하박국이 순종하고 기록하였기 때문이다(2:2).

이 기록은 영원히 남아서 미래의 여러 세대가 두고두고 읽을 것이다.

이 기록은 공적으로 전달되어 이것을 보는 모든 자가 위험에서 도망할 것이다.

이 기록은 하박국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미래에 대한 것이다.

가까운 미래: 바빌론 포로 생활, 그러나 히10장 37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바빌론 포로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실까? 그렇다.

환난기 유대인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실까? 그렇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4-5)

여기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비교

특히 가까운 미래: 바빌론 포로 생활, 바빌론의 멸망

1. 죄인: 바빌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업적으로 인해 교만하게 됨(4)

거의 난공불락의 제국 건설(단4:30)

바빌론 사람들과 느부갓네살만 교만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속한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

인생의 자랑(요일2:15-17),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교만은 또한 사람을 잘못되게 만든다. 이유; 그들이 옳지 않으므로

무언가 새로운 것들(경험들)을 찾아서 헤맨다(2:5; 행17:21).

바빌론 사람들은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략해서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산 모든 왕들이 결국 패망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2. 의인: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2:5), 롬1:17, 갈3:11, 히10:38
 하나님의 답과 위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함, 믿음과 은혜는 같이 다닌다.
 A. 합2:14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지금 세상, 폭력과 부패로 가득하다(창6:5, 11-13). 그러나 결국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B. 합2:20:, 하나님의 통치
 제국들은 서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왕좌에 앉아 계신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분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시다.

3.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A. 이신칭의, 종교개혁 구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함성
 마르틴 루터, 롬1:17
 바로 이 구절이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였다.
 칭의란 무엇인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위치를 주시는 것
 갈2:19, 롬4:5
 세리와 바리새인 비교(눅18:9-14), 종교적 행위는 칭의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음(갈2:21)
 칭의, 하나님과의 화평(롬5:1)
 B. 승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 결국 승리하게 된다(요일5:4).
 교만한 삶과 반대되는 것은 의로운 삶이다.
 하박국은 유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때가 닥치고 있음을 직감함
 이때 필요한 것: 믿음
 C. 믿음으로 산다(히10:30) 구약 시대 모세 율법 오해 사람들 행위로 구원 착각, 히11
 3.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합2:6-20).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시46:1)
 그러나 하나님을 모든 바빌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자, 그들의 죄를 정죄할 것이다.
 다섯 종류의 죄

1. 이기적인 야망(2:6-8)
 야망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야망이 사람을 욕심장으로 만들면 죄악이 된다.
 바울의 야망(롬15:20).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선포하라. 좋은 것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의 야망은 그칠 줄 모른다.
 약자들로부터 수많은 전리품, 이 약자들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7).
 결국 바빌론 사람들이 희생자가 될 것이다.
 메대 페르시아 바빌론 왕 벨사살 정복
2. 탐욕(9-11)
 부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엡4:20), 열심히 일한다. 흠친다. 받는다.
 도둑질하는 것, 십계명의 8번째 계명
 바빌론 사람들은 자기들 것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도둑질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막8:36)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탐욕을 가진 자들도 크게 찢렸을 것이다.
3. 백성을 착취하는 것(12-14)
 바빌론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건설됨, 전쟁 포로, 노예들의 희생(12)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바빌론을 태우는 연료가 되고 말았다(13).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그 많은 왕국들,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바빌론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을 덮을 것이다(14).
바빌론이 무너질 때(BC 539년경), 렘50-51,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때에 바빌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계17-18)
하나님의 영광(사11;1-9)

4. 술 취함과 폭력(15-17)

개인과 국가에 해당됨

성경은 음주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다, 술 취하면 문제가 생긴다. 창9의 노아를 보라(20-21).

바빌론의 횡포는 술 취함의 결과

성경에서 포도즙 잔은 항상 진노의 상징(16)

바빌론은 나무와 짐승도 악하게 처리함(17)

5. 우상숭배(18-20)

바빌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이 죄에 빠졌다.

우상숭배: 창조자 대신 창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롬1;23)

루시퍼로부터 시작됨(사14;14),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사탄의 이브 유혹. 네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창3:5)

그 이후로 온 인류의 문제가 됨, 자기 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한 어리석고 쓸모없는 일

사람이 만든 신이 무슨 도움이 될까?(18) 부처, 마리아 등

사람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사실 우상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죽어 있는 대상(19)

우상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현시대: 아이들, 사람들의 숭배 대상, 가수, 배우, 정치가 등

사회적 위치도 우상

4. 결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위로를 준다(2:20). 하나님이 섭리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본 하박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는 걱정 근심대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하박국 맥잡기 3: 모든 것이 비정상적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다
하박국 3장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몇 년 앞두고 하박국 대언자의 경험, 환상 계시

하박국 1장, 왜 종종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되는가?

어떻게 사악한 바빌론 사람들이 잘될 수 있는가?

2장 하나님의 대답: 상황이 어떻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2;4).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2:20).

오늘 < >

하박국 3장, 하박국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가 변하였다.

이제 그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

설명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해서 산다.

하박국처럼 솔직하게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어떻게 믿음의 정상에 갈 수 있을까? 기도, 말씀 묵상, 믿음

그 결과가 3장에 있다.

1.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보 기도(1-2), 하나님의 길들을 살핌(3-15),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16-19).

1.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보 기도(1-2)

이 장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사용된 시편 기도의 형식이다(시17; 86; 90; 102; 142).

19절 끝을 보라.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은 찬양과 예배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2:2-3)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롬10:17). 믿음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간다.

하박국이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3:2), 두려웠나이다.

그는 3-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환상 계시를 보았다.

그 결과 힘을 잃게 되었다(16).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깊게 알면 기쁨을 경험하지 않을까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는 떨었다(히12:18-21).

여호수아는 주 앞에서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렸다(수5:13-15).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보고 지쳐서 몸이 아팠다(단8:27; 10:11).

변화산상의 그리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두려움을 느꼈다.

사도 요한,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계1;17).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랑하기 위해 매번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약4:8,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사66:2,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그가 기도한 이유: 하나님의 일이 되살아나도록(이스라엘 관련), 1:5를 기억하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이 변영하도록 기도한다(2).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박국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기도한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였다(2).

유다 사람들의 징계 하박국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한다.
모세의 탄원(출32).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70년 포로 생활 중에 그들 보존, 귀환
하박국처럼 교회의 상태, 국가의 상태, 세상의 상태, 나의 비참한 영적 상태로 인해 낙심될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왕국 백성이 해야 할 일이다.

2. 하나님의 위대하심(3-15)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주신 것 같은 환상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것에서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세상 창조, 성경, 역사 안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15절은 이스라엘이 시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루트

1. 영광 속에 하나님이 오심(3-5)

데만은 에돔

바란 산: 어찌면 시내 광야 전체 혹은 시내 산을 가리킨다(신33:2).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 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 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3)

그분은 거룩하신 분(3:3), 이사야서 30회

3절: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에 대한 기대감(2:14)

그분의 나타나심은 폭풍우 속의 번개와 같다(4). 온 창조 세상이 그분의 영광 찬양

5절은 이집트, 재앙과 역병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출7-12)

파라오의 강박함 책망, 이집트 신들 심판(출12:12; 시78:50),

구약 시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

현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요1:14)

가장 처음 재앙, 물을 피로, 예수님의 기적, 물을 포도즙으로

2. 주께서 권능 가운데 서심(6-7)

침략하는 장수같이 하나님이 서심

땅을 측량한다(earth), 자기 소유

무언가 일을 하려 하신다. 민족들에게 진노를 부으신다.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민족들 구산과 미디안(7), 에돔 근처에 사는 사람들

구산은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탈출 소식에 그들은 놀란다.

3. 주께서 승리 가운데 행진하신다(8-15)

이스라엘의 행진을 시적으로 웅장하게 묘사함

홍해, 요르단 강, 이집트 병거들 수장됨

하나님의 병거는 구원의 병거

9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전투

10절은 이스라엘의 원수들 정복

하나님은 땅과 물과 자신의 창조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정하심

10절은 드보라와 바락 사건(삿4-5)

11절은 여호수아 당시의 기적, 해가 멈추어 서는 일(수10:12-13)

13-15절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여러 견해
기름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
어쩌면 바빌론 포로 생활 해방,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 사용
하박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낙심하던 하박국이 믿음의 정상에 가게 된 이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나서

3. 믿음 하나님의 뜻 확인(16-19)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 침략당할 것을 알았다.

백성의 다수가 죽고 포로 생활

땅이 초토화된다. 성전이 파괴된다.

하박국의 고백: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1. 인내하며 주를 기다리겠다(16)

그는 감정에 의지하지 않았다.

앞날을 바라보니 바빌론 침공, 안을 바라보니 본인 스스로 떨고 있다. 사방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았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믿음으로 걷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에 초점을 두는 것

믿음의 요소: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아브라함과 하갈을 보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다(1:5).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기를 기도하였다(3:2).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기에 평안이 있다.

2. 나는 주를 기뻐하리라(17-18)

바빌론 사람들 침략,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2:17)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왕좌에 앉아 계신다(2:20).

살전5:16-18

하나님은 그의 힘(19), 그의 구원과 노래(18)

그는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16),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바울과 실라(행16:19-34)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라(19). 암사슴처럼

사40:30-31

결론

의심, 어려움 솔직하게 주님께 토로하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기다려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경배하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바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기뻐한다.